

외국인 관광객, 우리 나라 전통 얼음낚시 매력에 흠뻑

- 제 10 회 심양 와룡호 얼음낚시 시즌 개막

우리 나라 전통 얼음낚시가 외국인 관광객들 속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1일, '제 10 회 심양 와룡호 얼음낚시 시즌'이 개막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 무비자 정책 확대에 힘입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렸다.

로씨야에서 온 한 블로거는 현장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촬영해 편집한 영상을 해외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송했다. 그는 로씨야에도 얼음낚시를 하는 전통이 있지만 보통 낚시대를 리용하며 중국식 얼음낚시와 비교했을 때 경기 규모가 훨씬 작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한 미국 관광객은 SNS에서 지난해 얼음낚시 영상을 보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그는 "얼음 위에 큰 구멍을 뚫어 물고기를 잡는 줄 알았는데 그물로 건져올리는 방식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지 관계자는 전통 얼음낚시는 호수에 들어가 얼음을 뚫은 후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길이 2,000미터의 그물을 한번 던지면 20~25톤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양 강평현 주민들에게 있어 얼음 낚시는 단순 풍년을 넘어 새해 행운을 의미한다. 현지인 양적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낚시를 보고 어탕을 먹으며 한해의 안녕을 바라는 것이 새해의 식"이라고 소개했다.

길림성 송원시에서 열리고 있는 차간호 얼음낚시에도 여러 나라 관광객

들이 몰렸다.

한 영국인 관광객은 "두꺼운 얼음에 구멍을 뚫어 그물로 대어를 낚는 얼음낚시는 생전 처음 본다."며 신기해했다.

관광객의 체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송원시는 시장과 얼음낚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얼음낚시 문화 체험존을 조성했다.

료녕사회과학원 연구원 장사녕은 점점 더 많은 외국인이 중국을 찾게 되면서 각 지역이 빙설문화관광을 발전시킬 기회를 맞았다고 말하며 "전통 빙설관광 상품을 토대로 지역 및 문화적 특색을 갖춘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화사

자원 공유하고 우세 상호 보완해 활기찬 발전 이끈다

중국중소기업협회 연길시 자가운전여행 문화관광대상 관련 전략적 협력 협의 체결

15일, 중국중소기업협회 길림성 판사처는 연길시정부와 전략적 협력에 관한 기틀 협의를 체결하고 길상자동차산업위원회, 연길월정보세물류봉사유한회사와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의를 각기 체결했다. 연길 자가운전여행 문화관광대상에 관한 세 가지 전략적 협력 협의가 체결됨에 따라 향후 이들은 자원을 공유하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는 면에서 협력을 펼치면서 연길시 문화관광사업의 활기찬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게 된다.

료해한 데 따르면 광범한 기업 자원과 업종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중소기업협회 길림성판사처는 관광산업 상하류를 잇는 소통과 협력의 다리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주변 자가운전여행 및 이력 자가운전여행

등 여행 형식의 흥기와 더불어 강대한 회원 시스템을 갖고 있는 중화자가운전여행의 새로운 자가운전여행리념은 광범한 중장년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은 연길시가 문화관광경제 발전을 탐색하는 새로운 경로이며 자가운전여행의 방식으로 연길의 독특한 자연자원과 문화매력을 보여주면서 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고 더불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유치 기제를 구축하여 연길시의 자원 우세를 경제 발전 우세로 전환되도록 촉진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여러 성의 우수기업가, 중국중소기업협회 회원기업, 중화자가운전여행 회원단위 대표 등 30여명이 체결식에 참가했다. 체결식이 끝난 후 회의 참가자들은 중국조선족민속원, 연길공룡박물관, 연변 RCEP 다국전자상거래전시판매센터 등 곳을 현지 고찰했다.

/ 연길시당위 선전부

전국 음력설 문화관광소비월 활동 가동



15일, 2025년 전국 음력설 문화관광소비월 주행사장 활동이 길림성 장춘시에서 펼쳐졌다. 음력설소비월 기간 각 지역에서는 겨울철 및 음력설 문화관광소비 특점과 결부하여 4,000여개 종목의 약 2만 7,000여차의 문화관광소비 활동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행사장 활동에서 문화관광부는 중국석유화학과 공동으로 '백설천역' 문화관광소비행동 계획을 가동했고 중국기상국은 빙설관광, 건강양생 등 상품과 소비 해민 조치를 내놓았으며 흑룡강, 길림, 료녕, 내몽골 4개 성(자치구) 문화관광청은 연합으로 동북지역 빙설경제 협동발전 및 문화관광소비구역 협력행동 계획을 발부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다원화 소비장면을 가일층 혁신하고 문화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산업발전시는 1월부터 2월까지 2025년 전국 음력설 문화관광소비월 활동을 개최하며 '문화관광 해민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자'를 주제로 각 지역에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소비해민 활동을 개최하게 된다.

음력설소비월 기간 각지에서는 음력설맞이 민속, 미식, 빙설, 건강양생, 친자, 연학, 공연 등 중점 소비수요에 근거해 소비빈, 입장료 우대, 소비판촉, 할인 등 해민 조치를 출범시켜 혜택적이고 편리한 문화관광 체험을 선보임으로써 즐겁고 상서로운 명절분위기를 더해줄 예정이다.

/ 신화사

2024 — 2025 안도 장백산겨울축제 개막

13일, '설국 장백산에서 겨울을 만끽'을 주제로 한 2024 — 2025 안도 장백산겨울축제 계열 활동이 안도현 이도백하진 내두산촌과 안복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안도현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안도현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

에서 주관한 활동은 안도현의 빙설문화와 관광산업을 접목하여 '장백산 제 1 현'이라는 안도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백산 제 1 진', '장백산 제 1 촌'을 관광명소로 육성하여 지역 빙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기획되었다.

겨울철 빙설관광 인기가 높아지면서 장백산 자락에 자리한 내두산촌과 안복촌은 다양한 겨울철 레저활동과 아름다운 설경을 즐기려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두산촌의 빙설놀이공원에 조성된 17채의 호빛족 마을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연출되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올해 내두산촌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른 '설국열차'는 관광객들이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며 여행의 낭만을 더해주고 있다. 열차 여행후에는 전지형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설원을 질주하며 스릴 넘치는 겨울의 한때를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내두산촌의 겨울 풍경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와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안복촌에 마련된 장백산빙설환락원에서는 스키를 비롯해 빙판탈출게임, 짜릿한 슬로프, 팽이치기 등 다양한 겨울 레저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빙판탈출게임은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연변조간



도문시, 다양한 특색의 겨울여행상품 출시

문화, 스포츠, 관광을 연결시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열기 불어넣어

2024 — 2025 겨울시즌 도문시에서는 '빙설향수, 민속체험, 국경관광'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겨울관광상품을 제공하면서 이를 통해 겨울관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도문시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에 따르면 도문시는 눈과 얼음을 활용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문화, 스포츠, 관광을 연결시키고 도문시빙설환락원을 중심으로 겨울축제를 펼치고 시내 곳곳의 관광명소와 어우러진 차별화된 겨울여행상품을 선

보임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문시청소년속스케이트대회, 전민설매릴레이, 전민빙상바줄당기기 등 다양한 겨울스포츠대회와 빙설 변형행 자원봉사활동, 겨울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겨울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3억명이 빙설스포츠에 참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설명절 분위기를 살리고 전통 민속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도문시는 새해맞이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랑수진에 조성된 '백년시장'에 마련된 200여개의 난전들에서 다양한 설날 선물을 판매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

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00년 전통의 민가에서 온돌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세번째로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무형문화재 공연과 조선족 음식을 즐기면서 전통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정월대보름을 맞아 뿔춤과 사자춤 공연, 무형문화유산 무용대회, 무형문화유산 상품시장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풍성한 문화축제도 선보일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민속체험, 설날풍경'을 주제로 국문생태원과 백년부락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여 설경감상, 꽃등축제, 눈사람 만들기, 봄맞이 춘련 불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독특한 설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여행상품을 선보이게 된다.

도문시는 또 '변경 + 커피'라는 독특한 테마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관광 체험을 선보이고 있다. '변경빙설, 도문과의 만남'이라는 빙설체험, 생태탐방, 문화체험, 자가운전여행 등 다양한 겨울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도문지역의 매력적인 국경 풍경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일광산에서 '새해 첫날 마시는 따뜻한 커피'라는 특별한 여행상품을 출시했는데 이를 통해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87거리를 새롭게 단장하고 86거리와 국문여행종합체 대상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다채로운 여행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 도문시당위 선전부

논밭의 깜짝 변신!

연안촌 빙설환락세계 관광객들에 인기



최근 화룡시 투도진 연안촌 빙설환락세계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화룡시유진문화관광개발유한회사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연안촌 빙설환락세계는 교양, 관광, 오락, 음식, 아이우르는 종합성 빙설놀이 대상이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촌에는 160헥타르 되는 큰 면적의 수전이 있는데 광활한 수전 공간을 리용하여 빙설놀이터를 조성했다.

빙설환락세계에는 빙설오토바이, 빙설미끄럼틀, 빙설바나나썰매, 왕홍 굴렁공 등 20여종의 빙설놀이가

있는데 동북 특색 경관, 특색 민박, 특색 음식이 어우러진 겨울철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이처럼 연안촌 빙설환락세계는 농업자원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게 사계절 동안 부동한 풍경을 통해 관광객들을 흡인하고 있다. 이 촌에는 또 흥흥견학기지, 왕흥촬영영역, 동물락원, 커피숍, 식당 등 시설도 마련되어있어 빙설놀이, 견학, 레저에 적합한 장소로 꼽히고 있으며 농업, 문화, 관광의 융합을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있다.

/ 김영화기자